

(주소) 16614 /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전화) 031-231-0859 (팩스) 031-236-0283

2025. 6. 30.(보도)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문화예술교육 비평웹진 '지지봄봄' 43호 '지지봄봄, 아직도 해요?' 발행, 13년 여정 되돌아보다	2쪽	있음	www.ggcf.kr	부서: 예술교육팀 담당: 최나운 전화: 031-231-0859

문화예술교육 비평웹진 '지지봄봄' 43호 '지지봄봄, 아직도 해요?' 발행, 13년 여정 되돌아보다

▶ 13년의 시간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탐색하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이 발행하는 문화예술교육 비평웹진 '지지봄봄'이 올해 독자와 만난다. 2012년부터 꾸준히 발행되어 온 지지봄봄은 올해 총 3회 발행을 예고하며, 오는 6월 30일 공개되는 43호 '지지봄봄, 아직도 해요?'를 통해 지난 13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짚는다. 이번 호는 인터뷰, 좌담,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형식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조명하고, 그 속에서 발견된 질문들을 독자와 함께 나눈다.

비평웹진이라는 다소 무게감 있는 이름과 달리, 43호 제목은 익살스럽고 친근하다. '지지봄봄, 아직도 해요?'는 콘텐츠 제작 과정 중 이전 담당자 인터뷰에서 나온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지봄봄의 지속성과 존재 이유를 되묻는 물음으로 발전해 이번 호의 주제가 되었다.

먼저 역대 지지봄봄 담당자들이 참여한 좌담 '담당자들의 지지봄봄 2012-2024' 시리즈는 지지봄봄이 맞닥뜨렸던 당시의 과제와 그간의 변화를 진솔하게 돌아보며, 공공기관 비평 웹진으로서 지지봄봄이 지닌 고유한 의미와 한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올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는 Death & Us 발행인 백현주의 글 '결격사유 缺格事由 - 데이터로만 본, 데이터로 만져본 지지봄봄'은 지지봄봄의 13년 운영 현황을 데이터로 분석하며, 디지털 미디어로서의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는 동시에 그 부재가 지지봄

봄만의 자유로운 성격을 형성한 측면도 짚는다.

2012년 창간호를 함께 준비했던 박형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센터장과 커뮤니티 스튜디오104 대표 임재춘 편집위원의 인터뷰 ‘지지봄봄 첫 질문, 무엇이었나’는 문화예술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초기 질문을 되새기며, 13년 전 시작된 물음을 통해 오늘날 문화예술교육과 맞닿아있는 고민을 되짚는다.

한편 공동체예술공방 칼산 정원철 대표와의 인터뷰 ‘지지봄봄에 다 있다’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이 감수성과 삶의 변화를 이끄는 힘임을 강조하며, 지지봄봄이 이를 기록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문학평론가 고영직의 글 ‘‘삶터’에서 탄생하는 미적 인간을 위하여’은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근간과 사회적 역할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삶터 중심의 실천이자 예술적 시민성 회복의 장으로 바라본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작년 독자와의 약속대로 안정적인 계간지로 자리 잡은 ‘지지봄봄’이 올해도 순조롭게 발행되고 있다”며,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비평적 시각을 확장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독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더 깊이 있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사진 자료 - 고해상도 이미지 별첨

웹이미지 1

